

‘홀로코스트’ 서사의 한계와 스미스의 『거울 속에 반영된 분노』에 제시된 치유 서사의 가능성*

정 순 국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 필자는 1993년 출판된 애나 디비어 스미스의 『거울 속에 반영된 분노』에서 기술된 인종간의 긴장과 갈등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 책은 1991년 뉴욕에서 발생했던 유대인과 흑인간의 충돌을 주요한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미 일인극의 형식과 텔레비전 연극시리즈로 방영된 적이 있다. 필자는 스미스의 인터뷰에 응한 많은 인물들이 여전히 홀로코스트와 노예제도의 담론이 지니고 있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뉴욕의 크라운 하이츠에서 흑인 공동체와 유대인 공동체는 끈적한 상실감을 공유하고 있지만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문화, 인종의 집단정체성을 고집한다. 그들의 서사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과거에 경험한 역사적 사건에 수사학적으로 매여 있는 것이다. 필자는 스미스가 『거울 속에 반영된 분노』에서 자기 모순적인 독백들을 병치시킴으로써 노예제도와 홀로코스트 같은 담론들이 여전히 인종적, 민족적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의도는 유대인 공동체와 흑인 공동체간의 갈등만을 전적으로 조사하는데 있지 않다. 대신, 필자는 유대인 홀로코스트와 흑인 노예경험을 포함한 ‘홀로코스트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7675)

수사학'이 내포하고 있는 비평적, 이론적 담론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 이러한 이해는 '홀로코스트 수사학'이 실패하는 지점을 드러내며 그것이 감추고 있는 폭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홀로코스트와 노예제도의 경험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다. 『거울 속에 반영된 분노』는 독자에게 자신의 맹목을 너무 쉽게 노출하는 '홀로코스트' 담론의 자기 모순적인 방식을 거울처럼 비춘다. 독자는 이와 같은 서사의 틈 속에서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서사가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목격하게 된다.

주제어 : 『거울 속에 반영된 분노』, 공감, 노예제도, 알레고리, 치유 서사, 홀로코스트

1. 자기 수사로서의 정체성 담론

본 연구는 애나 디버어 스미스(Anna Deavere Smith)의 『거울 속에 반영된 분노』(*Fires in the Mirror*)에서 사용되고 있는 독특한 서사양식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 작품의 서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개별 등장인물과 스미스의 사건, 분노, 감정,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를 통해서 다른 문화, 인종 집단 간의 갈등을 기본적인 서사구조로 이용하는 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장인물의 개별적인 서사와 공동체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서사 간의 차이는 종교, 인종, 성 그리고 계급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혀줄 뿐만 아니라 '정체성'에 기초한 서사가 내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포터 아보트(Porter Abbott)의 주장처럼, 서사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시작되었지만 인류는 서사와 함께 독특한 삶을 발전시켜왔다.

서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리 보잘 것 없다고 할지라도 서사를 예술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서사를 소설, 설화, 적어도 일화로 간주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서사가 예술이 될 수 있고 예술은 서사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서사는 예술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어떤 것이기도 하다.

When we think of narrative, we usually think of it as art, however modest. We think of it as novels or sagas or folk tales or, at the least, as anecdotes. We speak of a gift for telling stories. But as true as it is that narrative can be an art and that art thrives on narrative, narrative is also something we all engage in, artists and non-artists alike. (1)

따라서 서사는 단지 예술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온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인류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기술하며 의미생성의 가능성을 끝없이 타진하기 때문에 매체의 범위를 넘어서나. 언어와 달리, 서사는 언어와 그것이 구조화되는 방식을 일컫는데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문화, 역사,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사회적 구성요소와 증오, 공감, 이해와 같은 심리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거울 속에 반영된 분노』에서 집단정체성에 의존한 많은 독백들을 볼 수 있는데, 독자는 그들의 폐쇄성으로부터 공동체 간의 폭력적인 몰이해의 발생을 목격하게 된다. 이 작품은 1991년 뉴욕시 브룩클린의 크라운 하이츠(Crown Heights)에서 하시디즘(Hasidism) 유대교의 루바비치(Lubavitch) 파의 한 고위 성직자의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인도를 덮쳐 개빈 카토(Gavin Cato)라는 흑인 소년을 죽인 사건과 이후에 발생한 흑인 공동체의 폭력적인 대응 속에서 루바비치파에 속한 안켈 로젠봄(Yankel Rosenbaum)이 칼에 찔려 살해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스미스는 이 사건을 12개의 인터뷰와 25개의 독백으로 재구성한다. 크라운 하이츠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1993년 책으로 출판되기 전에, 1992년 뉴욕시에서 연극으로 공연되었고 이듬해에는 미국 공공방송망(PBS)을 통해서 『미국 연극 시리즈』(American Playhouse Series)의 일부분으로 각색되어서 방영되기도 했다. 텍스트로 옮겨진 인터뷰, 독백, 장면은 공연물을 볼 때의 긴박감과 박진감을 감소시키지만, 두 매체 간의 차이로부터 감정—특히 상실감, 정신적 고통 그리고 증오—과 사고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감과 비평적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거울 속에 반영된 분노』에서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사건은 흑인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겪고 있는 상실감이다. 이 작품에서 그들의 상실감은 흑인 아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죽음과 랍비 신학생의 살해사건으로 촉발되지만, ‘노예제도’와 ‘홀로코스트’¹⁾에 대한 경험 그리고 각 공동체의 정신 속에 깊이 각인된 피해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거울 속에 반영된 분노』에서 기술되고 있는 감정이, 현재 크라운 하이츠에서 발생했던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당했던 고통에 대한 분노감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으로 강화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인터뷰가 일어나는 장소에서,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감정을 불러오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상실의 경험이었던 사건에 의존하게 되고 이 감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집단정체성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정체성에 의존한 독백은 우리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타인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자기 모순적인 서사를 만들어냄으로써 어느 쪽이 옳은지 결정하기 어렵게 한다. 스미스도 물론 결정하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크라운 하이츠 사건과 관련해서 절실히 느껴지는 상실감과 갈등의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원인을 고찰하는 동시에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서사구조를 문제 삼는다. 어떻게 크라운 하이츠 사건, ‘노예제도’ 그리고 ‘홀로코스트’는 연결될 수 있을까?

스미스는 연극공연에서 자신이 인터뷰한 사람들의 몸짓, 표정, 어조, 의상을 가능한 한 그대로 재현한다. 그들의 몸짓, 표정, 어조를 흉내 내고 비슷한 의상을 입지만, 공연의 목적은 등장인물의 특징을 정확히 표현하는데 있지 않다. 대신 그들의 분노와 증오가 지니고 있는 양가적인 의미를 상연하는데 있다.²⁾ 스미스의 과장된 몸짓과 어투는 크라운 하이츠 사건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의 진위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 따라

-
- 1) 본 논문에서 작은따옴표가 붙은 ‘노예제도’와 ‘홀로코스트’는 등장인물들의 서사가 의존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지칭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두 용어는 그들과 관련된 상황, 감정, 사고, 논의를 모두 포함한다.
 - 2) 『거울 속에 반영된 분노』는 스미스가 인터뷰한 내용을 ‘일 인극’의 형식으로 공연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등장인물이 인터뷰, 대화, 독백으로 표현한 내용을 스미스는 텍스트의 서사로 옮겨놓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구조가 등장인물의 독백과 텍스트의 서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반되는 의미를 포착하게 한다.

서 ‘과장된 연기에 기초한 공연에서 텍스트로의 이동’은 사실적인 재현보다는 흑인과 유대인 공동체 모두가 빠져있는 상실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울 속에 반영된 분노』에서 스미스는,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도의 정치학”(politics of mourning)에 의존하는 다양한 독백을 소개한다. 데이비드 앵(David Eng)과 데이비드 카자니언(David Kazanjian)은 『상실: 애도의 정치학』(*Loss: The Politics of Mourning*)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애도의 정치학”을 다룬다. 그들은 “상실에 대한 우울증적인 애착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면 (...) 그것의 사회적 근거뿐만 아니라 특별하고 돌발적인 정치적인 면을 가시화할 수 있다”(2-3)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문화적이고 인종적으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다루는 스미스의 서사는 ‘노예제도’와 ‘홀로코스트’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고발하는 동시에 병리적 측면을 한 꺼풀씩 벗기면서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³⁾

상반되는 독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미 활동을 고찰하기 위해서, 스미스는 독백들의 순서를 그들의 충동이 잘 드러나게 배치한다. 사실, 『거울 속에 반영된 분노』는 극작품, 텔레비전 방송물 그리고 텍스트로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등장인물들 간의 언어행위가 대화를 하듯이 진행되는 것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스미스의 서사는 등장인물의 독백 속에 들어 있는 감정적, 인식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문제들과 화해를 시도 하면서 독자와 관객에게 그녀가 서사화하고 있는 상실감과 불완전하지만 간극을 뛰어넘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독자 또는 관객은 먼저 등장인물들의 상실감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면서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고 있는 ‘집단정체성에 기초한 서사의 한계’를 분석할 필요

3) 흑인 공동체와 유대인 공동체가 자기중심적이고 “호전적인 리비도적 욕망”에 사로잡혀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노예제도’와 ‘홀로코스트’의 반의어는 “진보, 인간, 관용, 예의” 등이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의 독백에서 볼 수 있는 ‘폭력성’은 관용 또는 선의와 대립적인 개념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독백 자체가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상대방의 폭력성과 동일한 자신의 폭력성을 선한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Ryder 126). 이런 점에서 우리는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흑인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의 자기정당성을 통해서 목격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가 있는 것이다.

「정체성」(“Identity”)이라는 제목이 붙은 『거울 속에 반영된 분노』의 첫 번째 부분은 흑인과 유대인의 일방적인 자기인식을 다룬다. 「사막」(“The Desert”)으로 명명된 이야기에서 엔토자케 샹케이(Ntozake Shange)는 정체성을 소속감과 분리감이라는 이중적 감정으로 경험한다. 그녀는 자신을 ‘자기 주변 환경의 일부분이라고 말하다가 분리된 존재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나는 내 주변 환경의 일부분이야. 차이를 분명히 만들어내는 것이 내 정체성을 갖도록 하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거야”(Smith 3). 샹케이는 사막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외적인 대상과 자신을 구분한다. 그녀는 사막의 일부분으로 느끼는 감정의 변화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감정적으로 느끼고 이성적으로 파악한 ‘사막’을 외적으로 존재하는 사막과 구별하면서 자신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막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우리는 사막의 일부분을 가지고 가지.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막이 아니야”(4). 샹케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사실도 자기가 처해 있는 ‘주변 환경’도 아니고 외부의 대상에게 투사해서 얻는 자기인식이다. 그녀는 사막을 보면서 느낀 외로움의 감정을 독점함으로써 상대방의 존재 가능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내적 감정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변화시킨다. 처음에 그 정도로까지 강하게 느끼지 못했을 샹케이의 외로움은 외적 대상인 ‘사막의 황량함’에서 빌려온 이미지로 인해 강화되는데, 이런 점에서 그녀가 구축하고 있는 정체성은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된다. 이처럼 차이와 차별에 근거한 정체성은 개별적이고 다양한 특성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해내는 상징어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상화하면서 자신을 대상화하는 상대방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개인들 간의 차이와 갈등은 개인적 정체성을 집단적 정체성으로 변화시키고 개인의 독특성을 지울 때 강화된다. 『거울 속에 반영된 분노』에는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흑인과 유대인 공동체의 특별한 경험과 동일시하려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중에서 특히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집단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서사의 대립적 양상과 그들의 서사

자체가 자신이 비판해온 이데올로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예시한다. 하나는 목사인 콘라드 모하메드(Conrad Mohammed)와 나눈 인터뷰를 독백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모하메드는 현재 뉴욕에서 일어난 개빈 카토의 교통사고를 ‘노예제도’의 맥락 속으로 슬쩍 끼워 넣음으로써 흑인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경험보다 더 강조하려고 한다.

오늘날 미국의 흑인이 처한 상황은 백인들의 사악한 행동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 그들은 우리로부터 인간성을 빼앗고 노예제도의 고통을 안겨 주었다. . . .

The condition of the Black man in America today is part and parcel, through the devilishment that permitted Caucasian people to rob us of our humanity, and put us in the throes of slavery. . . . (52)

모하메드는 중간항로(Middle Passage)를 환기시키면서 흑인 여성들이 아버지, 남편,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당했으며 인류사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 중에서 가장 불행하고 잔인한 일이었다고 말한다. 모하메드가 인터뷰를 하면서 스미스와 옆에 있던 친구의 서로 다른 육체적 특징을 언급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흑인들은 노예제도 때문에 그들의 본향인 아프리카로부터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유한 육체적 특징을 빼앗겼다고 비난한다. “우리 여성들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강간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몇몇 사람은 당신처럼 생겼고, 다른 몇몇은 나처럼 생겼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친구처럼 생긴 거야. . .”(54). 모하메드는 백인의 유전자 때문에 미국 흑인들이 그들의 원래 모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원초적 과거에서 흑인의 본질적인 이미지를 찾으려고 한다. 그들은 지리적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와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정체성을 올바르게 형성하지 못한 채 “기억상실의 희생자”(56)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모하메드에 따르면, 백인들이 제멋대로 붙여서 불렀던 이름 스미스와 존스는 노예제도에서 가장 흔하게 불렀던 이름인데, 이 이름들은 흑인들에게 독립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예시한다고 하겠다. 여기서 모하메드는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이 「기억의 장소」(“The Site of Memory”)에서

주장한 ‘재-기억’의 서사행위를 상기시키지만, 모리슨처럼 기억을 비극적 역사라는 과거의 틀로부터 구출해서 재구성하지는 못한다. 대신 그는 백인과 유대인을 갑자기 연결시키면서 유대인들이 흑인들의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강탈해서는 그들 행세를 한다고 강력하게 비난한다. 원초적 과거로부터 흑인의 온전한 정체성을 구하는 모하메드의 서사는 그들이 과거에 겪었던 비인간적인 대우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자칫 다양한 경험 이후에 발생하는 서사의 의미생성력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게다가, 모하메드의 독백은 현대의 다문화사회에서 정체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담론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예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는 집단의 결속력을 강조함으로써 통합적인 논리를 구축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논리적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모하메드의 주장처럼 과연 정체성이 신체적인 특성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신체적 특성에 기초한 정체성에 대한 그의 강조는 어떤 점에서 백인 우월주의와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백인과 유대인의 위치를 바꾸면서까지 ‘흑인들의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그의 노력은 기껏해야 ‘노예제도’의 변형된 형태는 아닐까?

레티 코틴 포그레빈(Letty Cottin Pogrebin)과의 전화 인터뷰는 신체적인 특징에 의해서 정체성을 결정했던 행위가 초래한 비극적인 사건을 다룬다. 전화 통화를 할 때, 포그레빈은 처음에는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너무 자주 이야기하게 되면 유대인 독자들이 식상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지만, 결국 『데보라, 골다, 그리고 나』(*Deborah, Golda, and Me*)에 실려 있는 삼촌 아이작(Issac)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준다. 아이작은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과란 눈동자와 금발의 머리 때문에 동료 유대인들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야 할 인물로 선택된다. 그에게 강제 수용소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임무가 맡겨졌던 것이다”(Smith 61). 아이작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독일 군인들에게 그가 아리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아주 효과적으로 유대인들을 후송 열차에 태워서 가스실로 들여보내야만 했다.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한 유대인들 중에는 아내와 자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에 도착한 후, 아이작은 유대인 관련기관, 지도자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가 목

격했고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아이작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를 강제 수용소에서 구해주었던 금발의 머리는 백색으로 변했고 멍한 눈빛이 하늘빛처럼 파란 눈동자를 지워버렸다. 이야기를 다 마친 몇 달 후, 40대에 불과했던 아이작은 폭삭 늙었으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지금이 생을 마감할 때라는 것을 직감하며 삶에 작별을 고한다.

모하메드와 포그레빈의 독백은 공동체와의 유대감이 개인에게 안정적인 정체성을 제공하지만, 그들의 서사가 의존하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결국 자기 지시적 의미만을 생산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제시한다고 하겠다. 그들의 서사는 ‘홀로코스트’와 ‘노예제도’의 상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불러오지 못한 채 회복할 수 없는 의미만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서사와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서사가 되는 것이다. 스미스는 외상적인 상처를 입은 공동체를 극복하고 상실감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공동체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에 간섭한다. 홀로코스트와 노예제도에 대한 경험을 ‘다시’ 재연하는 서사적 개입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경험이 초래하는 윤리적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클리프톤 스파고(Clifton Spargo)의 주장처럼, 정신적 외상은 반복을 통해 처음 발생하는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현재의 의식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게 된다(114). 모하메드와 포그레빈이 ‘노예제도’와 ‘홀로코스트’를 현재의 사건으로 치환하려는 이면에서 치유되지 않은 정신적 상처가 놓여있다. 정신적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술했던 대로 배타적이고 틀에 박힌 집단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고통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는 피해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만을 보고 똑같이 고통스러운 타인의 아픔을 외면한다. 고통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만 그 속에서 타인의 아픔을 느끼고 확장된 의미를 삶 속에서 체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일은 중요하다. 크라운 하이츠의 경우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해는 서로의 서사가 주장하는 자기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고에 대한 분석이 돼야 한다. 무엇이 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II. 침묵으로서의 서사행위와 서사행위로서의 침묵

『거울 속에 반영된 분노』에는 두 가지 침묵이 존재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화자들의 침묵이 하나이고, 독백과 독백 그리고 공연과 텍스트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이 다른 하나이다. 먼저, ‘침묵’의 의미를 칼 아돌프 아이히만(Karl Adolf Eichmann)의 법정진술과 폴 드 만(Paul de Man)의 초기 친나치적인 행적과 후기 해체론적인 비평작업을 통해서 검토해보겠다. 아이히만의 법정 진술은 ‘홀로코스트’ 서사의 특징을 분명히 보여준다. 아이히만은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저작을 읽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그의 정언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칸트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는 있었지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칸트의 명령을 독선적으로 읽으면서 아이히만은 그의 정언명령을 이렇게 바꾼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통치자의 입법의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Arendt 210). 아이히만은 칸트의 정언명령—“마치 네 행위의 준칙이 네 의지에 의해 보편적인 자연법칙이 되어야 할 것처럼 행위하라”(Kant 55)—을 변형시켰지만,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우리의 의지는 선해야 하고 통치자는 계몽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아이히만은 자신의 주장과 행위는 통치자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신이 저지른 행위는 국가와 통치자의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서 범죄행위가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괴변을 들으면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아이히만의 ‘평범한 모습’을 목격하고 한 번 더 놀란다. 아이히만의 평범한 모습 속에 숨어 있는 ‘악’을 직시했던 것이다. 아렌트는 자신의 놀란 경험을 “악의 진부성”으로 표현한다. 아렌트의 인식처럼 악이 우리 일상에 편재하고 있다면, 그것의 구체적인 특성과 그것을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원인을 고찰하는 일은 중요하다.⁴⁾

‘홀로코스트’가 아이히만의 법정증언과 드 만의 비평작업을 가능하게 하면서 불가능하게 한다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드 만은 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드 만의 ‘홀로코스트’ 경험은 첫째 침묵의 형태로 드러나고, 둘째 비평의 형식을 취한다. 드 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르 스와』(*Le Soir*)지에 나치를 옹호하는 글을 썼고, 이 사실은 사후에 밝혀진다. 그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드 만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쇼사나 펠만(Shoshana Felman)의 지적처럼, 드 만의 “침묵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설명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행동으로 해석”(12)되었다. 그렇다고 드 만이 자신을 향한 비판⁵⁾에 전혀 답을 안 한 것은 아니다. 드 만의 비평적 작업은 언어의 지시적 능력을 문제 삼으면서 ‘나치 이데올로기’처럼 통합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언어가 사실을 왜곡, 변형, 고정시키는 방식을 끝없이 비판하기 때문이다. 『독서의

-
- 4) 아렌트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힘든 ‘악’을 설명하면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아이히만은 세 가지 무능력 때문에 그가 아우슈비츠에서 저지른 행위의 폭력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능력이 없었으며, 자신의 언어로 생각을 표현할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 특히 고통 받는 타자와 공감할 수도 없었다. 아이히만은 독재자의 생각과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괴물’이 되었던 것이다. 침묵하던 말을 하던 그 속에서 ‘지속적 변명’의 논리만을 발견한다면, 독립적인 생각을 통한 언어 생산과 교류가 아니라 미리 정해진 의미의 반복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동일한 서사는 자기이익에 봉사하는 결국은 제멋대로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자의적 언어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아이히만의 증언이 단 하나의 분명한 의미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존재에 대한 멸시, 인종차별, 권력에 대한 탐욕을 엿볼 수 있다. 아이히만은 겉으로 ‘나치라는 정권을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이 비존재로 규정된 유대인을 ‘청소’함으로써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강화했던 것이다. 히틀러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침묵하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적 관계를 통해서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말을 반복하면서, 타인의 경험과 전혀 다른 ‘홀로코스트’에 대한 진술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아이히만의 법정증언의 진의는 그가 진술하지 않은 침묵 속에 들어 있는 동시에 그것을 서사화할 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5) 드 만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썼던 기사와 후기 비평적 작업에 대한 비판은 애블린 배리스(Evelyn Barish)의 『폴 드 만의 이중생활』(*The Double Life of Paul De Man*)을 참고하기 바람. 이 책에서 애블린은 드 만의 개인적 비리뿐만 아니라, 그의 해체론에 대한 웨인 부스(Wayne Booth)와 메이어 하워드 아브람스(Meyer Howard Abrams)의 비판을 소개하면서 나치의 점령지 벨기에에서 쓴 기사들이 문화비평가로서의 확고한 지위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알레고리』(*Allegories of Reading*)에서 루소의 『고백록』을 분석하면서, 드 만은 모든 고백 속에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290).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시각에서 재구성하는 것도 문제고 빛바랜 신문의 지면에 적시되어 있는 증거조차 모든 정황을 고려한 유일한 진실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 사건에 대한 증거와 회고적 진실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고백을 드 만은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직도 진행 중인 홀로코스트의 의미를 선부른 간섭으로 형성하고 급하게 완결 짓고 싶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도미니크 라카프라(Dominick LaCapra)의 주장처럼, “드 만의 비평서에 들어있는 침묵의 흔적, 편재하는 무언, 그리고 알레고리적 암시가 그의 침묵을 온전히 해명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러한 개념들이 고백의 부채를 정당화하려는 욕망에 의해서 촉발되었다면 더욱 그렇다”(1994, 11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언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의 불확정성을 폭로하는 것이 드 만의 비평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⁶⁾ 충분하지 않지만 자신의 초창기 신문기사를 ‘침묵’으로 반성하면서, 드 만의 후기 비평적 글은 ‘침묵’ 속에 들어있는 나치 이데올로기를 비판적 시각에서 서사화하기 때문이다. 드 만은 “고백해야 하는 잘못”과 “고백이 초래할 수 있는 잘못”(de Man 1979, 294) 사이에서 자신이 저지른 (역사적) 실수를 비평적 작업을 통해서 반성하는 동

6) 드 만은 텍스트의 다양한 의미작용에 주목하면서 해석의 다양한 가능성을 언어의 ‘알레고리’(allegory)에서 찾는다. 드 만이 언어의 수사적 특성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언어의 의미 탐구 가능성을 질문하는 행위가 문학비평가의 ‘윤리적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에 사용된 언어가 단일한 의미를 지시하기 때문에 전하려는 내용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전할 수 있다면, 독자의 반응이나 해석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의 언어와 재현하고자 하는 의미 사이에 ‘틈’이 존재한다면, 단일한 의미를 주장하는 모든 언어행위는 자신의 모순과 맹목을 감추는 것에 불과하다. 언어는 단일한 의미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이 드 만의 생각이고 단일한 해석이 불가능한 이유는 언어의 수사성(the rhetoric of language)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드 만에 따르면 해석이 억압하고 있는 대상은 텍스트 자체가 된다. 어떤 해석이 감추고 있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텍스트의 의미생성 활동을 의심하는 일은 중요하다. 지속적인 읽기가 텍스트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은 텍스트를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서사구조다. 드 만은 『독서의 알레고리』에서 “언어는 문법구조와 비유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텍스트의 의미는 두 구조 간의 끝없는 긴장 속에서 어떠한 확정적인 의미도 전달하지 못한 채 중단된 무지(suspended ignorance)만을 반복한다”(19)고 주장한다.

시에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드 만과 아이히만이 침묵을 서사화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드 만은 자성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고백을 선호하는 반면에 아이히만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자기주장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을 소재로 다루기 때문에 얼핏 두 개의 연관된 서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두 서사가 서로를 배척한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서사는 지시하는 대상을 초월해서 의미층위를 확장시킬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시적 기능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히만과 드 만의 침묵⁸⁾ 속에서 독자는 두 가지 서사 양식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는 ‘홀로코스트’를 이용하는 서사고, 다른 하나는 ‘홀로코스트’를 반성하는 서사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응과 관련해서 현재를 그것과 무관한 듯 사는 사람과 그것의 폭력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이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말을 해도 침묵하는 자이고 후자는 침묵해도 말을 하는 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과거의 경험을 재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언어행위 역시 동일한 사고를 반복하면서 ‘침묵’의 논리를 강화하고 타인의 목소리를

7) 언어의 한 가지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한 채 사건을 서술하는 행위가 단일한 의미생산을 목표로 한다면, 언어의 수사성은 언어의 지시능력을 의심하면서 ‘통합적 의미의 불가능성’을 전제로 ‘독단적 서사’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폴 모리슨(Paul Morrison)의 주장처럼 “언어와 대상을 일치시키는 행위는 현상적이기보다는 관습적이기”(121) 때문이다. 드 만 또한 “언어는 인식론적으로 매우 의심스럽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사용을 더 이상 진실 또는 허위의 관점에서 결정할 수 없다”(de Man 1986, 10)고 말한다.

8) 아이히만은 인지 불가능한 ‘무의식 또는 무지에 의존해서, 나치가 자신을 변명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무죄를 주장함’(Felman 150)으로써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반면에 드 만은 “인간 지성을 이론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역사적 추문을 단순히 하나의 관념으로 축소하고 역사와 동화될 수 없는 충격으로 환원시키려는 자기변명적인 담론”(de Man 1979, 300)을 비판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지성은 문제 있고 이것을 무의식적 요인이나 (이미 지나간) 역사적 사건으로 환원시키는 행위는 자신의 문제적 지성의 본질을 외면하고 오히려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에게는 (순전한) 무지의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후자는 자신의 지성을 결국 무지로 변형시키면서 망각을 조장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언어행위로 끝나기 때문이다.

배제하는 폭력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화시키면서까지 동일성 속에 들어 있는 폭력을 즐기는 자가 된다. 언어와 의미 간의 정확한 일치를 욕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언어행위가 미리 정한 의미만을 전달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말을 하건 안 하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언어행위를 고집하지만,⁹⁾ 사실 그들의 구체적인 언어행위는 완결되고 독단적인 이데올로기에 기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de Man 1984, viii).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자신만의 ‘진실성’을 고집하는 모하메드와 포그레빈의 독백이 충돌하는 것은 당연하다. 스미스는 다양한 독백들을 서로 충돌하는 지점으로 내몰면서 때로는 사실을 제시하기도 하고 다른 때는 독선적인 주장을 소개하기도 한다. 그곳에서 독자는 자기모순에 빠진 서사를 목격하게 되고 ‘윤리적이고 공감적인 서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독자는 수많은 인터뷰 대상자들의 독백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서사로 재구성하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현장을 스미스의 서사에서 목격하는 것이다. 앤 앤린 쉹(Anne Anlin Cheng)은 이렇게 말한다. “스미스는 갈등하는 주장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간에 대립하는 관점을 제시하는데”(189), 이때 상반되는 주장은 상대방에게 저항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에게 저항하는 것이 된다. 스미스는 대립하는 서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로 통합될 수 없으며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핍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결핍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침묵을 버리고 상대방과 공감하는 능력이다.

9) 사실,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의미를 미리 정해놓았기 때문에, 단일한 의미를 추구하는 언어행위는 정해진 의미영역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언어행위를 하나의 지시적 의미를 전달하는 문법적 구조로 환원시킬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의 의미를 고집하는 상징과 같은 비유어로 축소시키는 일 또한 불가능하다. 앤드레이 워민스키(Andrzej Warminski)의 지적처럼, 드 만은 모든 담론이 비유어로 환원될 수 있거나 비유적 구조처럼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12). 대신 그는 모든 언어(행위)는 문법적 구조와 비유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구조 사이에서 존재하는 의미의 잠정성(temporality) 속에서 서사의 한계를 목격하는 동시에 새로운 의미창출의 요구를 인식하게 된다고 말한다.

III. 저항하면서 치유하는 공감적 서사

마사 너스봄(Martha Nussbaum)은 『시적 정의: 문학적 상상력과 공적인 삶』(*Poetic Justice: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Public Life*)에서 문학적 경험, 공감, 정의, 그리고 민주사회 건설의 관계를 고찰한다. 그녀가 다루는 중심 주제는 “상황의 변화로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다”(5). 그레고리 제이(Gregory Jay)에 따르면, “너스봄은 공감의 감정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동감이고 다른 하나는 동정이다. 동감은 등장인물의 감정과의 동일시를 수반하고 독자를 등장인물의 가치와 신념으로 끌어들이어서 그들의 인식을 받아들여지게 한다”(123). 동시에 동감은 본질적으로 인식의 차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평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상대방이 알고, 믿고, 감지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공정하고 현명한 관찰자로서 동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감정에 동감할 수 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도 『도덕 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에서 공감을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과 그들의 고통에 반응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렇지만 동정할 때 우리는 특별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래전에 주장했던 것처럼, 동정은 어떤 사람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고 믿을”(Nussbaum 65) 때 발생하는 것이다. 동정하기는 쉬워도 공감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양자 모두 ‘정의’가 판단의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정은 잘못을 시정하고 공정함을 실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쉽고 공감은 도덕적 판단을 유보한 채 행위의 당위성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추구할만한 가치 예컨대 사랑 또는 측은지심과 같은 감정으로 타인을 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문화적, 인종적 집단 간의 단절을 ‘좁혀질 것 같지 않은 거리’로 인식하거나 차이를 넘어서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질문에는 타인을 공정하게 대할 때의 위험성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야 하는 어려움이 들어있다. 타인이 처음부터 불공평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놓여있다면 그들에게 공정한 기준과 규칙을 적용하는 행위는 결코 정의로운 행동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타인과의 관계단절은, 프리모 레비(Primo Levi)가 『이것이 인간인가』에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한다. 페트릭 로렌스(Patrick Lawrence)가 “지시성의 위기에 직면한 피난민: 홀로코스트 회고록과 폴 드 만의 해체론”(“Refugees of a Crisis in Reference: Holocaust Memoir and the Deconstruction of Paul de Man”)에서 주장한 것처럼, 레비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룬 이 책은 혹독한 수용소에서 경험한 일을 일상적인 에피소드를 기술하듯 평범하고 때로는 시적인 문체로 서술함으로써, 독단적인 이데올로기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언어행위가 삶으로부터 빼앗아간 다양한 모습, 관계, 감정을 (또는 일상적 행복의 소중함을) 조용하지만 강하게 표현한다(25). 아우슈비츠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 공간이다. 레비의 회고록은 “일상적인 사소한 습관 속에, 낡은 편지, 소중한 사람의 사진 등 가장 가난한 거지조차 간직하고 있을 법한 우리의 수백 가지 소지품 속에 각각 어떤 가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34)보라고 권한다. 레비에 따르면, 아우슈비츠의 경험은 ‘상실한 것을 생각하는’ 애도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음”(Levi 301)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레비에게 “광적인 반유대주의는 (...) 어찌면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도 모른다. 이해한다는 것은 정당화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301-302). 레비의 주장처럼, 우리는 자신을 괴물과 동일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늘날 정상적인 사람 중에서 히틀러, 힌러, 괴벨스, 아이히만 등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302). 괴물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상대방을 증오하면서 슬픔에 젖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타인의 존재성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레비 또한 공감의 감정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302) 것으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히틀러와 아이히만 같은 자들은 누구인가? 스미스는 『거울 속에 반영된 분노』에서 ‘홀로코스트’와 ‘노예제도’의 담론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는다. 그녀에게 괴물은 과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에 얽매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점에서 도미니크 라카프라(Dominick LaCapra)가 말한 “정신적 외상이 가져오는 과거와의 단절” 다시 말해 “기억 속에 착오 또는 분열”(1998, 9)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미스가 극복하려는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스미스의 ‘화해 없는 갈등을 상연하는 행위’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스미스는 『거울 속에 반영된 분노』의 마지막 부분에 서까지 서로 상반되는 서사를 병치시킴으로써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다른 집단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준다. 세 개의 독백 중 첫 번째인 로슬린 맬라머드(Roslyn Malamud)의 「쿠데타」(“The Coup”)는 동일성과 관련하여 인간중심적 사고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제시한다. 맬라머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그들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어”(Smith 123)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명목상 인도주의자이며 인종차별반대주의자라는 사실을 거리낌 없이 폭로한다.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누가 내 흑인 이웃인지 모르겠어.
프레지던트 가에 한 여인이 사는데—
클레어야—
나는 그녀를 아주 좋아해.
I don't love my neighbors.
I don't know my Black neighbors.
There's one lady on President Street—
Claire—
I adore her. (123)

이런 폭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녀의 특권의식과 권력이다. 맬라머드는 폭동이 일어났을 때, “나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122)라고 고백하며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녀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흑인과의 접촉인 것이다. 그녀는 “흑인을 알고” 싶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는다”(123)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두 집단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종교적인 차이

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그녀는 흑인의 고통을 이해할 마음이 없고,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끝없이 그들을 밀어내면서 권력이 자신의 특권을 확고히 보장해주고 있음을 분명히 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경찰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흑인에게 폭력인 것이 멜라머드에게는 그녀의 권리를 지키는 합법적인 행위가 된다. “잘못은 경찰당국에 있다. 경찰은 흑인들을 진압하지 않았어”(125).

멜라머드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정치적 특권의식은 다양한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특히 그녀는 경제적 차이를 근거로 내세운다. 사람들은 “모두 일을 한다.” 그렇다고 “그들 모두가 이곳에 집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야 (...) [게다가] 그들도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해”(123-124). 모든 사람이 일을 하지만 능력에 따라서 수입이 다르고 거주지가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경제적 차이가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능력 자체로 인간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데에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멜라머드는 자신의 인종차별주의적인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장 없는 흑인 소년들’과 ‘임신한 흑인 소년들’을 논거로 들기까지 한다. 멜라머드에게 흑인의 저항은 “유명한 알 샤프톤 목사가 사주한” 일이 되고 “이 자를 서임한”(124) 사람들은 그녀가 정한 이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멜라머드는 자신의 감정에 과도하게 몰입한 채 흑인들에 의해서 살해된 안켈 로젠봄의 부모님을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 잘못 인용함으로써 ‘홀로코스트’ 수사학이 내포하고 있는 ‘무고한 자에 대한 억압’을 극대화하고 나치와 흑인을 암암리에 동일시한다. 제이의 주장처럼, 멜라머드의 오해는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에 게재되었던 제임스 배런(*James Barron*)의 기사에서 비롯된다(140). 배런에 따르면, 안켈은 “폴란드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생존자의 아들”(B1)이다. 그러나 패트리샤 허타도(*Patricia Hortado*)가 1997년 2월 11일에 작성한 『뉴스데이』(*Newsday*)의 기사에 따르면, 안켈의 형 노만(*Norman*)은 “조부모 네 분은 20세기 초에 호주로 이주했고 멜버른으로부터 120마일 떨어진 셰퍼튼(*Shepperton*)의 오렌지 농장에 정착했다고 말 한다”(A04). 여기서 문제가 되

는 것은 맬라머드 주장의 진위 여부가 아니다. 『거울 속에 반영된 분노』에서 몇몇 화자는 진실성이 의심되는 주장을 한다. 스미스의 『거울 속에 반영된 분노』는 크라운 하이츠 갈등을 둘러싼 사실을 다큐먼트처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집단정체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서사가 등장인물이 크라운하이츠의 사건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이의 지적처럼, “로젠봄의 부모를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 언급하는 맬라머드의 가벼운 진술은 그녀가 초래했던 일련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진술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텍스트 또는 공연에서 어떤 것도 이러한 주장의 잠재적 허위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관심이 도덕적 권위와 해석적 정당성을 주는데도 말이다”(141). 맬라머드 서사가 회고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 이야기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서사의 잠재적 허구성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맬라머드의 독백에서 ‘홀로코스트’ 서사가 확대되면 될수록 아우슈비츠에 대한 사실이 목격되거나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달하려고 했던 ‘의미에 대한 침묵’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서사의 잠정성은 자신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작가가 표현하기를 원하는 감정, 사고, 그리고 갈등에 의해서 끊임없이 간섭받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맬라머드의 이야기는 ‘홀로코스트’ 서사, 그녀의 목격담, 그리고 저널매체의 기사 사이에 놓여있다. 그들의 ‘차이’가 맬라머드가 형상화하고 있는 갈등의 근저에 있다면, 스미스는 차이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기 위해서 독자에게 말을 걸고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개빈 카토와 안켈 로젠봄에게 발생했던 사건은 우연한 일도 운명적인 일도 아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둘 다 가능한 해석이지만, 스미스의 서사가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연한 사건도 운명적인 사건도 될 수 없는 것이다. 한 무리의 흑인은 안켈 로젠봄이 분명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공격했다. 카토의 죽음을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라고 부를 때, 안켈 로젠봄의 형 노만 로젠봄처럼 흑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크라운 하이

츠에서의 흑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이다. 사고가 있던 날 카토와 일곱 살짜리 사촌이 크라운 하이츠에서 놀고 있었던 것을 단순히 우연한 사건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곳은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그들만의 삶을 만들어온 구체적인 공간이기 때문이고 어른들은 이웃들과 사귀며 다양한 관계를 형성해온 장소이기 때문이다. 루바비치파 랍비가 자동차 행렬을 하면서 그곳에 거주하던 흑인 이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속도를 낸 것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랍비와 수행원의 무모한 자동차 질주는 그들의 행동 이면에 내재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거울 속에 반영된 분노』의 결말을 개빈의 아버지인 카멜 카토(Carmel Cato)의 독백으로 끝맺는다. 이 독백이 작품의 맨 끝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카토의 서사는 바로 앞에서 소개된 멜라머드와 루벤 오스트로프(Reuven Ostrov)의 독백뿐만 아니라 문화적, 인종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에 대한 스미스의 답변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고현장을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카멜 카토는 자신의 분노를 강하게 표출할 뿐만 아니라 절제된 언어로 분노를 억제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낸다. 제이가 지적하듯이, “카멜의 독백은 슬픔으로부터 분노 그리고 정의로 이동하는데 노예제도가 일으키는 상실감과 그것이 촉발시킨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144). 데이비드 앵(David Eng)과 신희 한(Shinhee Han)은 애도와 우울증의 심리학이 미국 소수인종의 경험을 기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인종차별주의의 결과와 백인문화로의 동화에 대한 요구는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애도를 포함한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일련의 상실을 의미한다. 상실감을 경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 후에 새로운 애착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우울증”을 정의한다면, 그들이 겪고 있는 “일상적인 갈등과 투쟁을 인종주의적 경험으로 고정시키고”(344)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심리상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카멜 카토는 현재의 사건을 부재한 의미와 연결시키면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집착하는 우울증의 언어 대신에 애도의 형식으로 우울증을 극복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독백을 유아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상호주체적이고 지속가능한”(358) 이야기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카멜 카토는 사건을 직시하고 자신의 언어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의미의 산개(dissemination)를 요구한다. 자동차가 개빈 카토를 치는 순간 자동차 “냉각기, 호스” 그리고 “길가에 놓인 쓰레기통”을 비롯한 “모든 것”이 “마치 원자폭탄처럼”(Smith 135-136) 폭발했다고 카멜 카토는 고백한다. 그는 “죽은 듯이 누워있는” 아들 곁으로 가려고 했지만 저지당하고 “경찰로부터 빈정대는 말”(135)만 듣게 된다. 자신의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 가는데 그에게 가지 못하는 장면은 오래된 이산의 슬픔을 상기시키면서, 소수자들이 겪는 부당함을 걱정적으로 호소한다. “나는 나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 정말 웃기지 않아, [당신이 돌보고 있는 아이가 눈앞에서 죽는다면,] 아이가 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죽는다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 거야”(136). 카멜 카토의 슬픔은 개빈 카토의 죽음을 둘러싸고 드러나는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에 대한 분노와 정의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이따금 나는 정의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해,
유대인들,
그들은 말이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대단해.
그들은 판사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조정하지.
Sometimes it makes me feel like it's no justice,
like, uh,
the Jewish people,
they are vert high up,
it's a very big thing,

10) 캐시 커루스(Cathy Caruth)에 따르면, 정신적 외상은 “외부가 아무런 중재 없이 내부로 침입할”(59) 때 발생한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대상이 외상 신경증을 초래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생존의 독특하고 당혹스러운 경험”(60)을 여전히 감지할 수 있다. 이 말은 외부 충격에 의해서 빼앗긴 것을 부정하는데 애도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고 상실(감)을 자신의 경험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자기인식에 기초해서 타인에 대한 이해력을 넓히고 타인과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they runnin' the whole show
from the judge right down. (138)

카멜 카토에게 유대인들은 접근할 수 없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며, 원하지 않는 욕설을 하도록 자극하는 존재지만, 그가 정말로 화를 내는 대상은 불공정한 사회구조다. 다양한 인물들이 개빈 카토와 안켈 로젠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들의 침묵은 자기 논리를 강화하면서 자신의 이야기 다시 말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침묵이 감추고 있는 자기 모순적 생각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침묵은 자신을 비롯한 타인과의 교류를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타인의 도전을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부류는 자기가 정한 의미만을 반복하고 그래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며 문제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리 정해진 의미만을 반복하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자고 언어(작용)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고유한 의미를 변화와 발전으로 풍부하게 하는 대신에 왜곡하는 자다. 결국 그는 '고정된 의미의 유일한 진실성'을 주장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독선적인 사람에 불과하다. 『인본주의와 민주적 비평』(*Humanism and Democratic Criticism*)에서,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는 이런 사람을 자신에 대한 비평을 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과 동일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찰과 경험 부족에 기인한 공감적 능력의 결핍에 따른 지성인의 한계를 비판한다 (123-131).

동일한 맥락에서, 반성적인 행위가 되고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행위 또는 변명이 의사소통의 부재를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침묵이 언어와 대상과의 일치를 고집한다면 변명은 그들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말을 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전자는 지시대상을 가리키지만, 후자는 지시하는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아이히만의 법정진술은 '홀로코스트'를 특수한 역사적 상황의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벗어나는 경험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다. 우리는 카토와 로젠봄의 죽음에 대해서 무슨 변명

할 수 있을까? 죽음의 결과가 ‘노예제도’와 ‘홀로코스트’라는 원인에 있다고 고집하는 것이 올바른 읽기인가? 역사가 여전히 ‘억울한 죽음’을 반복하는 이유는 ‘불행했던 역사적 사건’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일까? 역사적 사건을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카토와 로젠봄의 죽음을 목격해야 하고 인정해야 하며 이해해야 한다. 그들의 죽음과 관련된 분명한 원인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비극적인 결과를 해석하는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들을 인정하고 이해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카토와 로젠봄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회고하면서 시작하지만 언제나 그들이 지시하는 대상의 한계를 넘어선 곳에서 의미작용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거울 속에 반영된 분노』가 침묵의 서사를 부정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다시 말해서 이 작품은 침묵이 부정하고 있는 언어작용을 활성화시키고 동일한 언어 속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똑같은 의미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서사 자체가 수사적이고 미사어구를 많이 사용한다고 서사구조가 복잡해지고 의미가 풍부해지는 것은 아니다. 카멜의 서사는 수사적이고 미학적이지만, 그렇다고 그의 분노와 감정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건조하지도 않다.

어떤 점에서 카멜 카토의 서사는 단편적이고 파편적이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술된 것처럼 보이지만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적이지도 않다. 그렇다면 카멜 카토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크라운 하이츠의 일상을 서술하면서, 카멜 카토는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간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이야기 중간 중간에 슬픔이 담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함으로써 바로 앞에서 서술한 두 명의 유대인 화자들의 주장을 반박하지만 그가 실제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인간에 대한 질문’이다. 카토의 독백은 불법적인 행동도 무화시킬 수 있는 사회의 불공정한 관습과 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함으로써 서사의 윤리적 측면을 자극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독자는 그의 독백에서 현재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공동체 간의 불신과 함께 소수자의 생존 그리고 공존을 주장하는 서사로의 변화를 목격하게 된다. 카멜은 분명한 의미를 내보이지만 얼핏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로 자신의 독백을 마무리 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다르게 태어났다. 나는 거꾸로 태어난 사람이야”(Smith 139). 카토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의해서 아주 쉽게 왜곡될 수 있는 저급한 연민과 각자가 처한 특별한 상황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감을 구분한다. “그들이 나를 압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나는 감출게 없지, 내 말을 그대로 전해도 돼(139).” 카토는 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카토는 자신의 독립적이고 독특한 존재를 주장함으로써 개인의 특성을 무화시키는 ‘노예제도’와 ‘홀로코스트’로부터 벗어나는 동시에 그들을 견디면서 저항하는 생존자와 공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형화된 서사로부터의 탈출은 이중적이다. 카린 볼(Karyn Ball)의 주장처럼, 생존자와 공감하는 일은 그들이 겪었던 사건을 지시하면서 초월하기 때문이다. “생존자와의 공감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정체성이 작동하고 있는 상상적 구조 속에서 볼 수 있는데 (….) 그것은 사회적인 [동시에 개인적인] 이해”(198)를 요구한다. 역사적인 서사와 증언은 생존자를 증인석에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생존자의 증언은 역사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수치심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일인 극, 텔레비전 방송물 그리고 텍스트를 통해서 생존자를 증인석에 세워놓고 대상화하는 청중의 역할을 거부한다. 대신 그녀는 자신을 생존자의 이야기 속으로 밀어 넣고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 다시 말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공감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서사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갈등이 봉합되는 과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프리모 레비, 『이것이 인간인가』, 이현경 역, 돌베개, 2015.
- Abbott, Porter,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Cambridge: Cambridge UP, 2002.
- Arendt, Hannah.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New York: Penguin, 2006.
- Ball, Karyn, *Disciplining the Holocaus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2009.
- Barish, Evelyn, *The Double Life of Paul De Man*, New York: Liveright, 2014.
- Barron, James, “Brooklyn Victims: Wrong Place and Time,” *New York Times* 21 Aug., 1991.
- Caruth, Cathy,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96.
- Cheng, Anne Anlin, *The Melancholy of Race: Psychoanalysis, Assimilation, and Hidden Grief*, Oxford: Oxford UP, 2001.
- de Man, Paul, *Allegories of Reading: Figural Language in Rousseau, Nietzsche, Rilke, and Proust*, New Haven: Yale UP, 1979.
- _____, *The Resistance to Theory*,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6.
- _____, *The Rhetoric of Romanticism*, New York: Columbia UP, 1984.
- Eng, L David and David Kazanjian, “Introduction,” *Loss: The Politics of Mourning*, eds. David L. Eng and David Kazanjian, Berkeley: U of California P, 2003.
- Eng, L David and Shinhee Han, “A Dialogue on Racial Melancholia,” *Loss: The Politics of Mourning*, eds. David L. Eng and David Kazanjian, Berkeley: U of California P, 2003.
- Felman, Shoshana, “After the Apocalypse: Paul de Man and the Fall to Silence,” *Testimony: Crises of Witnessing in Literature, Psychoanalysis, and History*, eds. Shoshana Felman and Dori Laub, New York: Routledge, 1992.
- Hurtado, Patricia, “Victim Was More Than Just a Name: Chronicle of a New York Tragedy,” *Newsday* 11 Feb., 1997.
- Jacobs, Carol, “Allegories of Reading Paul de Man,” *Reading de Man Reading*, eds. Linday Waters and Wlad Godzich,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9.

Jay, Gregory, "Other People's Holocausts: Trauma, Empathy, and Justice in Anna Deavere Smith's *Fires in the Mirror*," *Contemporary Literature* XLVIII. 1, 2007.

Kant, Immanuel, *Groundwork for the Metaphysics of Morals*, ed. and trans. Allen W. Wood, New Haven: Yale UP, 2002.

LaCapra, Dominick, *History and Memory after Auschwitz*, Ithaca: Cornell UP, 1998.

_____, *Representing the Holocaust: History, Theory, Trauma*, Ithaca: Cornell UP, 1994.

Lawrence, Patrick, "Refugees of a Crisis in Reference Holocaust Memoir and the Deconstruction of Paul de Man," *Intertexts* 13.1-2, 2009.

Morrison, Paul, *The Poetics of Fascism: Ezra Pound, T. S. Eliot, Paul de Man*, Oxford: Oxford UP, 1996.

Nussbaum, Martha G, *Poetic Justice: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Public Life*, Boston: Beacon Press, 1995.

_____,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New York: Penguin Books, 2006.

Pogrebin, Letty Cottin, *Deborah, Golda, and Me: Being Female and Jewish in America*, New York: Crown, 1991.

Ryder, Andrew, "Politics after the Death of the Father: Democracy in Freud and Derrida," *Mosaic* 44.3, 2011.

Said, Edward W, *Humanism and Democratic Criticism*, New York: Columbia UP, 2004.

Smith, Adam,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ed. Ryan Patrick Hanley, New York: Penguin, 2009.

Smith, Anna Deavear, *Fires in the Mirror*, New York: Anchor Book, 1993.

Spargo, R. Clifton, "Trauma and the Specters of Enslavement in Morrison's *Beloved*," *Mosaic* 35.1, 2002.

Warminski, Andrzej, "Introduction," *Aesthetic Ideology*, Paul de Man, ed. Andrzej Warminski,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96.

❖ ABSTRACT

The Limitations of Holocaust Narratives and the Possibility of Healing Narratives Suggested by Smith’s *Fires in the Mirror*

Jung, Sun-kug

In this paper, I intend to focus on the 1991 racial tension and violence portrayed in Anna Devear Smith’s book *Fires in the Mirror*, which was published in book form in 1993. I make use of a series of interviews with many of those involved in the conflicts, which were based on the Jewish Holocaust and the history of African American enslavement. In Crown Heights, the black community and the Jewish community have each suffered terrible losses, but individuals and communities become rhetorically attached to foundational historical traumas that lie at the center of each group’s cultural identity rather than try to understand each other’s pain. Smith lets this rhetoric dominate *Fires in the Mirror* by putting contradictory monologues side by side in order to show how discourses on ‘slavery’ and ‘the Holocaust’ still have control over specific ethnic communities.

My intention is not to delve into the conflict between the Jewish and black communities exclusively. Rather, I attempt to form an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of the critical/theoretical tenets proposed by ‘the rhetoric of holocaust,’ including the Jewish Holocaust and the black experience of enslavement. Such an understanding will help us see the failure in the theories, illuminating the ways that such rhetoric should have recognized its own violence and helped to forge a new relationship between racism and anti-Semitism. *Fires in the Mirror* mirrors back to us the ways that ‘the Holocaust’ betrays the possibility of error to indicate its own susceptibility to blindness. The cracks brought forth by conflicting narratives enable readers to observe wounds being healed and the possibility of new narrative looming up.

Key Words

allegories, empathy, *Fires in the Mirror*, healing narratives, the Holocaust, slavery

404 비교문화연구 제43집 (2016.6.)

논문접수일: 2016년 05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6월 03일

게재확정일: 2016년 06월 08일